

# 13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2021.9.9-16

PRESS KIT | 보도자료집



# 13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PRESS KIT

보도자료집

Contents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소개	
영화제 소개	4
조직구성	5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요	6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주요 특징	7
포스터	8
페스티벌 아이덴티티	9
시상내역	10
심사위원	11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프로그램	
주요 특징과 변화	14
개막작	16
국제경쟁	18
아시아경쟁	20
한국경쟁	22
단편경쟁	24
글로벌비전	27
한국다큐쇼케이스	30
오픈시네마	32
청소년 섹션	34
DMZ-POV	
DMZ-POV	37
워드 DMZ	
게스트 및 상영작 정보	41

행사	
행사내용	43
DMZ인더스트리	
DMZ인더스트리 소개	45
지원분야 및 사업개요	46
선정 프로젝트 정보	48
상시사업	
VoDA	51
독 스쿨	52
프레스가이드	
프레스가이드	54
홍보팀 연락처	56

13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INTRODUCTION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소개

영화제 소개

개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이하 DMZ Docs)는 2009년 출범 이후로 전 세계의 우수한 다큐멘터리 작품을 국내에 꾸준히 소개해왔다. 이를 통해 관객과 영화인들의 지지를 얻으며 국내 최대의 다큐멘터리 영화제로 자리매김했다. 13회째를 맞은 올해는 9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영화제를 개최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DMZ Docs는 영화제의 새로운 역할과 위상을 모색한다. 좋은 작품을 관객에게 소개한다는 영화제 본연의 역할은 변함 없이 유지하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플랫폼을 구축해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하게 영화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는 더 많은 관객과 만나길 희망하며 힘차게 열세 번째 영화 축제를 선보인다.

또한 다큐멘터리 창작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영화인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 역시 이어간다. DMZ인더스트리를 통해 유능한 창작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며 아시아 다큐멘터리 산업 전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우수한 작품을 해외에 소개해 국내 다큐멘터리 제작현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산업 관계자가 함께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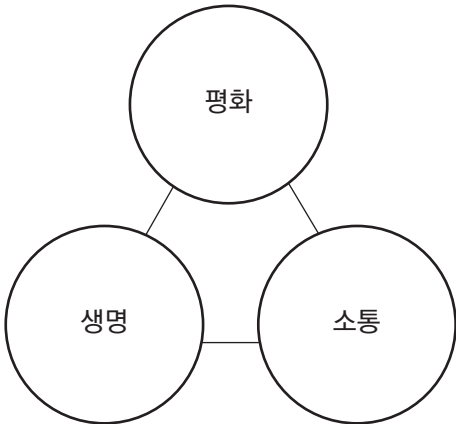
이 외에도 DMZ Docs는 다양한 다큐멘터리 관련 사업과 포럼을 진행하며 다큐멘터리의 공공성과 사회적 기능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DMZ Docs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관객들이 다큐멘터리를 친숙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우며 다큐멘터리 장르의 대중화를 위해 힘쓰는 영화제로 관객, 영화인들과 함께할 것이다.

미션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로서 한국과 아시아 다큐멘터리 창작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다큐멘터리로 관객과 영화인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비전

분단의 비극을 넘어 화해와 공존의 희망을 찾고 금지된 땅이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 다시 태어난 이곳에서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 세계인들이 만나는 다큐멘터리 영화 축제의 장을 만든다.



조직구성

조직위원 명단

구분	성명	직위
조직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조직위원장	이재준	고양시장
부조직위원장	최종환	파주시장
조직위원	김동원	다큐멘터리 감독
조직위원	김옥영	다큐멘터리 감독
조직위원	이광기	방송인, 배우
조직위원	강현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직위원	권영기	고양상공회의소 회장
조직위원	김진기	경기도문화체육관광국장
조직위원	오창희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원장
조직위원	이우종	경기아트센터 사장
조직위원	정상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조직위원	정재왈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직위원	지성규	하나은행 은행장
조직위원	진모영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부집행위원장
조직위원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조직위원	최창의	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

집행위원 명단

구분	성명	직위
집행위원장	정상진	옛나인필름 대표이사
부집행위원장	진모영	다큐멘터리 감독
집행위원	허은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사무국장
집행위원	장우일	경기도 콘텐츠정책과 과장
집행위원	신봉교	고양시 전략산업과 과장
집행위원	이귀순	파주시 문화예술과장
집행위원	김선아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집행위원	김지영	다큐멘터리 감독
집행위원	문정현	다큐멘터리 감독
집행위원	박병철	벨라시타 이사
집행위원	변성찬	영화평론가
집행위원	설경숙	다큐멘터리 감독
집행위원	유운성	영화평론가
집행위원	이승준	다큐멘터리 감독
집행위원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집행위원	조지훈	무주산골영화제 프로그래머
집행위원	형건	EBS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

## 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요

개요	
명칭	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성격	부분 경쟁을 도입한 국제 영화제
기간	2021년 9월 9일(목) - 16일(목), 8일간
주상영관	메가박스 백석 (고양시)
개막식	2021년 9월 9일(목) 19:00 / 메가박스 파주출판도시
폐막식	2021년 9월 16일(목) 19:00 / 메가박스 백석 컴포트 4관
상영규모	39개국 126편
개막작	〈수프와 이데올로기〉( <i>Soup and Ideology</i> ), 양영희 감독
주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후원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산업진흥원

##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주요 특징

### 변함없이 우수한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영화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이하 DMZ Docs)는 2009년부터 전세계의 우수한 다큐멘터리 작품을 국내에 소개하며,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제로 성장해왔다. 코로나로 전세계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좋은 다큐멘터리는 만들어지고 있기에 DMZ Docs 역시 ‘우수한 작품을 관객들에게 소개한다’는 영화제 본연의 역할을 올해도 이어간다.

올해는 시상금 증액과 시상 분야 정비를 통해 아시아 대표 다큐멘터리 영화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보다 우수한 작품들을 선보이고자 했다. 그 결과 총 39개국에서 온 126편의 작품을 상영작으로 선정했으며 전문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프로그래밍을 선보인다. 다큐멘터리 장르로서의 성취를 갖춘 수준 높은 작품들은 물론, 관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들도 두루 엄선했다. 각기 다른 주제의식을 다양한 형식 속에 담아 낸 작품들을 통해 다큐멘터리가 주는 즐거움과 감동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영화제

영화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극장 상영은 이어가되 철저한 방역절차 마련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통해 안전한 상영관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화제가 자체 개발한 스트리밍 플랫폼 VoDA(보다)를 통해 온라인 상영을 동시 진행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함과 동시에 영화제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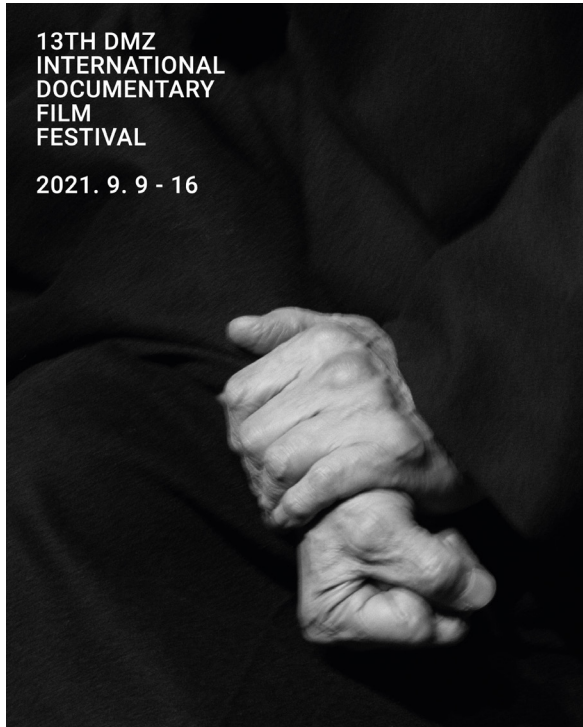
영화제가 종료된 이후에는 다양한 국내외 다큐멘터리 작품을 스트리밍하는 다큐멘터리 전문 OTT로 VoDA를 운영한다. 이 외에도 온라인 기획상영 ‘DMZ랜선영화관 다락(Docu&樂)’, 다큐멘터리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독 스쿨’ 등의 사업을 이어가며 다큐멘터리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들을 상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 다큐멘터리 창작자와 동행하는 영화제

한편 DMZ Docs는 다큐멘터리 산업 플랫폼으로서, DMZ인더스트리를 비롯한 제작지원 사업을 변함없이 이어간다. 제작지원금 규모를 대폭 증액하고 제작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창작자들의 니즈에 맞는 지원사업을 선보인다.

이 외에도 다큐멘터리 창작자 건강권 지원, DMZ 소재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등의 신규사업을 통해 코로나로 위축된 제작환경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도를 이어간다. 올해도 DMZ Docs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재능 있는 창작자를 지원하고 우수한 작품들이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포스터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DMZ Docs) is a Korean film festival for documentaries, jointly presented by Film and Planning in Jeonju Province. The 13th DMZ Docs will take place on 9th-16th September 2021.  
DMZ Docs is the largest film festival for documentaries in Asia. The festival primarily focuses on introducing documentaries from Asia and plans to spotlight on outstanding works all around the world. DMZ Docs also invites DMZ industry to support documentary filmmakers across Asia and discover promising prospects to present to the world.  
DMZ Docs will continue to promote outstanding Korean and Asian documentaries overseas, and help build a greater audience for documentary films.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매년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의 작품을 기반으로 메인 포스터를 제작함으로써 영화제의 아이덴티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분단 현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단면을 예리하게 포착해 온 노순택 작가의 작품을 메인 포스터 이미지로 선정했다.

포스터에 사용된 작품 '백기완의 주먹'은 올 2월 타계한 사회운동가 백기완 선생의 불끈 쥔 주먹을 담은 사진이다. 약자와 소수자가 있는 곳에서 함께 투쟁하고 활동한 백기완 선생의 모습처럼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역시 관객 · 영화인과 함께하며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 사회를 진실하게 비춰갈 것을 다짐하는 포스터이다. 포스터 그래픽 디자인은 서울 패션위크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더웍스'에서 진행했다.



**Jonas Bendiksen**  
노순택  
작가

2016 구분주예술상  
2014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12 동강사진상  
2009 올해의 독일사진집 은상

노순택 작가는 오래 전 끝났을 것만 같은 한국전쟁이 오늘의 한반도에서 어떻게 살아 숨 쉬는지 탐색해 왔다. 전쟁과 분단을 경직된 역사의 장에 편입시킨 채 시시때때로 아전인수식 해석잔치를 벌여온 '분단권력'의 빈틈을 찌러보려는 것이다. 분단체제는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작동하는 동시에 오작동해 왔다. 분단은 자율적인 동시에 열쇠였다. 남북은 적이자 친구였으며, 서로의 극장이자 거울이기도 했다. 그의 작업은 분단이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으며, 사회와 개인의 삶을 왜곡시켜 왔음을 체감케 한다.

### 활동

〈분단의 향기〉〈분단의 향기〉〈알웃한 공〉〈붉은 틀〉〈좋은 살인〉〈비상국가〉〈망각기계〉 등의 국내외 개인전을 열었고, 같은 이름의 사진집을 펴냈다. 구분주예술상(2016),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2014), 동강사진상(2012), 올해의 독일사진집 은상(2009)을 받았다

## 페스티벌 아이덴티티

### 로고형태입 기본형



### 시그니처 \_ 기본형



### A 타입 \_ 가로 응용형



제13회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21.9.9-16



제13회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21.9.9-16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13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2021.9.9-16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13회를 맞아 새로이 개발한 타이포그래픽을 활용해 로고를 리뉴얼했다.

다큐멘터리 장르 특유의 '현실적(Realistic)'이미지는 결국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삶 속에 있는 다양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다. 새로운 로고 역시 단순한 사각형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지만, 다양한 도형과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형상으로 태어나고 결합하며 DMZ Docs를 상징하는 그래픽으로 그 의미를 확장해간다.

또한, 편안하고 직관적인 도형의 형태를 통해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주는 진중한 이미지를 넘어 더 많은 관객과 함께하고자 하는 DMZ Docs의 의지 역시 로고에 담겨 있다. 작업은 서울패션위크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 · 예술 분야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더웍스'에서 진행했다.

## 시상내역

### 국제경쟁



국제경쟁 상영작 중 최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트로피와 상금 20,000,000원을 수여한다.



국제경쟁 상영작 중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트로피와 상금 10,000,000원을 수여한다.



아시아경쟁 상영작 중 최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트로피와 상금 15,000,000원을 수여한다.



경기영화학교연합과의 협업에 의해 구성된 학생심사단이 아시아경쟁 상영작 중 한 편의 작품을 선정하여 트로피와 상금 3,000,000원을 수여한다.

### 한국경쟁



한국경쟁 상영작 중 최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트로피와 상금 15,000,000원을 수여한다.

### 단편경쟁



단편경쟁 상영작 중 최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트로피와 상금 10,000,000원을 수여한다.



단편경쟁 상영작 중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트로피와 상금 7,000,000원을 수여한다.

### 특별상



한국 장편 상영작(경쟁 및 비경쟁 부문) 중 한국의 문화와 다문화 사회를 주제로 한 우수 작품에 트로피와 상금 10,000,000원을 수여한다.



한국 장편 상영작(경쟁 및 비경쟁 부문) 중 신진감독(장편 2편 이내)의 우수 작품에 트로피와 상금 10,000,000원을 수여한다.



한국 장편 상영작(경쟁 및 비경쟁 부문) 중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날카로운 비판이 돋보이는 작품에 트로피와 상금 7,000,000원을 수여한다.



한국 장편 상영작(경쟁 및 비경쟁 부문) 중 미학적 실험 및 영상미가 돋보이는 작품에 트로피와 상금 7,000,000원을 수여한다.



한국 장편 상영작(경쟁 및 비경쟁 부문) 중 영화적, 미학적, 기술적 성취를 보여준 한국영화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아티스트에게 트로피와 상금 5,000,000원을 수여한다.



장편 경쟁(국제경쟁 · 아시아경쟁 · 한국 경쟁) 상영작 중 DMZ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관객들의 투표에 따라 최고 관객 평점을 받은 작품에 트로피와 상금 5,000,000원을 수여한다.

### 청소년 섹션



청소년 섹션 상영작 중 무한한 창의력을 보여준 작품 1편에 상장과 상금 1,000,000원을 수여한다.



청소년 섹션 상영작 중 기대되는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 1편에 상장과 상금 1,000,000원을 수여한다.



청소년 섹션 상영작 중 자유로운 시각을 돋보이는 작품들(4~5편)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 심사위원 본심

국제경쟁	라제기	1999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문화부에서 주로 영화를 취재하고 영화에 대한 글을 써왔다. 엔터테인먼트팀장과 문화부장, 신문국 에디터를 거쳐 영화전문기자로 일하고 있다. 칼럼 '라제기의 숏 & 숏', 뉴스레터 '라제기의 영화로운' 등을 쓰고 있다. 영화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영국 서식스대학에서 영화학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질문하는 영화들』 등이 있다.
	민병훈	러시아국립영화대학을 졸업했으며 1998년 〈별이 날다〉, 2001년 〈관찰아, 울지마〉, 2006년 〈포도나무를 베어라〉로 토리노국제영화제 대상, 카를로비바리국제영화제 비평가상, 테살로니키국제영화제 은상 등을 수상하며 데뷔하였다. 〈터치〉(2013)는 영상자료원 올해의 영화로 선정되었다. 함부르크영화제와 상하이영화제 등에서 〈사랑이 이긴다〉(2015)가 상영되었고, 〈평정지에는 평정지였다〉는 전주국제영화제 및 실크로드국제영화제 등에서 초청되었다. 현재 생명에 관한 장편 3부작인 〈황제〉(2018)와 〈기적〉(2020), 〈팬텀〉(2021)을 완성하였으며, 제주도에서 휴먼 다큐멘터리 〈악숙〉을 촬영 중에 있다.
	정혜윤	CBS 라디오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다. 미술적 저널리즘을 꿈꾸며 라디오 다큐멘터를 제작해오고 있다. 2019년 〈넘겨진 이들의 선물〉로 한국방송대상 작품상을, 〈자살율의 비밀〉로 한국PD대상 라디오부문 작품상을 수상했고, 2020년에는 〈조선인 전범 75년 동안의 고독〉으로 방송대상 작품상을 수상했다.
아시아경쟁	박문철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2013년 사적 다큐멘터리 〈마이 플레이스〉를 시작으로 〈파란나비효과〉(2017), 〈쿼어053〉(2019), 〈보드랍게〉(2020) 등의 작품을 연출했으며, 캐나다 핫독스(Hot Docs) 영화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등 국내외 영화제에서 작품을 상영한 바 있다. 사회 속의 개인, 개인의 삶 속에 깃든 사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이수정	한국영화아카데미를 졸업하고 80년대말 독립영화 운동을 하였으며, 90년대 이후 방송 다큐 연출, 극영화 프로듀서로 활동하기도 했다. 2012년 첫 장편다큐 〈깁깁깁 희망버스〉를 시작으로 노동과 자본, 예술의 관계를 살펴보는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를 꾸준히 연출, 제작하고 있다. 〈시 읽는 시간〉(2016)은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초청을 비롯, 유럽, 남미, 중동의 영화제에 초청되어 호평을 받았으며 〈재춘언니〉(2020)는 부산국제영화제 비프메세나상과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회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통케이위	통케이위는 싱가포르에서 주로 활동하는 영상 큐레이터다. 그는 현재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서(SGIF)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프로그램 디렉터로 일하고 있다. 그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아시아필름아카이브(Asian Film Archive, AFA)에서 프로그램 파트너십 및 2019년에 신규 런칭된 시네마테크 사업을 담당했다.
한국경쟁	강유가람	〈문화기획집단 영화야놀자〉 결성을 함께하며, 여성국극을 다룬 장편 다큐멘터리 〈왕자가 된 소녀들〉의 조연출, 배급 프로듀서로 활동했다. 한국 사회의 가족주의와 부동산 문제를 다룬 중편 다큐멘터리 〈모래〉(2011)를 연출, 제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최우수한국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다. 기지촌에서 살아온 여성들의 삶과 공간의 변화를 다룬 장편 다큐멘터리 〈이태원〉(2016)으로 들꽃영화상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으며, 박근혜정권 퇴진 정국에서 페미니스트의 목소리를 다룬 다큐멘터리 〈시국페미〉(2017)를 연출했다. 2019년 〈우리는 매일매일〉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한국경쟁부문에서 작품상을 수상했다. 여성의 역사와 공간의 변화를 기록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란희	1996년부터 8년간 '극단 한강'에서 배우와 기획자로 활동했다. 〈어떤 시선〉(2012), 〈낮술〉(2008), 〈뇌절개술〉(2005) 등 다수의 영화에 출연했다. 단편영화 〈파마〉(2009), 〈결혼전야〉(2014), 〈천막〉(2016), 장편영화 〈휴가〉(2020)를 연출했으며 〈휴가〉(2020)으로 제46회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장편대상과 독불장군상 등을 수상했다. 인천에서 '작업장-봄'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며 연극과 영화를 통해 이웃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
	제인 진 카이젠	시각예술가이자 실험영화 감독으로 일하며, 덴마크왕립미술아카데미 미디어아트 대학의 교수로 일하고 있다. 시각적으로 인상적이고 다층적이며, 표현적이고 시적인 페미니즘 성향의 작품들로 잘 알려져 있으며, 과거와 현재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제58회 베니스 비엔날레에 〈이별의 공동체〉(2019) 설치 작품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단편경쟁	김정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방송영상과 예술사, 전문사 과정을 통해 다큐멘터리를 공부했다. 월드비전에서 5년간 근무하며 공적개발원조(ODA) 및 국제개발관련 정책 및 캠페인 업무를 진행하기도 했다. 제작한 작품으로는 〈하늘언어〉(2009), 〈내사랑 한옥마을〉(2016), 〈학교가는 길〉(2020) 등이 있다.
	손경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여성영상집단 반이다에서 활동했다. 〈개청춘〉(2009,공동연출), 〈그 자식이 대통령 되던 날〉(2011), 〈의자가 되는 법〉(2014)을 연출했으며, 〈자, 이제 댄스타임〉(2014)과 〈우리는 매일매일〉(2021) 등을 촬영했다. 무너지지 않고 나아가는 힘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다.
	안소현	부산 출생. 〈낮은 목소리 3- 숨결〉, 〈밀애〉, 〈발레교습소〉에 스크립터로 참여했다. 영화사 마케팅팀, 기획 연출팀에서 근무했으며, 2015년부터 국내 최초의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사무국 일을 하고 있다.
특별상	김환태	김환태는 다큐이야기 소속 감독으로, 반전・평화・소수자 인권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2003), 〈원폭 60년, 그리고...〉(2005), 〈708호, 이등병의 편지〉(2004), 〈핵마피아〉(2016), 〈세월 오적(五賊)-망각과 기억2 中〉(2017) 등을 제작해 왔다.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2- 금기에 도전〉(2020)으로 제12회 DMZ국제다큐영화제에서 최우수한국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다.
	문석	『중앙일보』 문화부를 거쳐, 영화 전문 주간지 『씨네 21』에서 약 15년간 취재 기자와 편집장을 지냈다. 영화수입배급사 씨네룩스에서 크라우드 펀딩 사업인 '펀딩 21'을 관리했고 수입 작품을 선정했다. 2017년에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산업 프로그래머를 담당했다. 지금은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다.
	윤성은	2010년 한양대 영화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이듬해 영평상 신인평론상을 받으며 본격적인 평론활동을 시작했다. 방송,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영화인과 관객을 만나왔으며 『영상의 이해』, 『이야기, 트랜스포머가 되다』, 『세 도시 이야기』 등을 공동집필했다. 2020년에 '복층엔터테인먼트(주)'를 설립해 콘텐츠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청소년 섹션	안현준	대학에서 영상학을 전공 후, 장편 다큐멘터리 〈멀리 있는 그대와 가까이 있는 당신에게〉(2017)를 연출했다. 이후,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2019)의 촬영과 조연출로 참여하였다. 현재 촬영부로 활동하고 있다.
	홍다예	DMZ청소년다큐제작워크샵 3, 4기 수료생이며, 〈시발.〉(2014)는 제7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청소년경쟁에 초청되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심사위원 예심

장편경쟁	김병규	영화평론가
	김숙현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 프로그래머
	나원정	중앙일보 영화 담당 기자
	남다운	영화평론가
	박군제	감독, 〈건설 유니버스의 어떤 오류〉(2020) 등
	배주연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영화연구자
단편경쟁	문창현	영화활동가, 오지필름 대표
	송아름	송아름 영화평론가, 영화연구자

13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PROGRAM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프로그램



##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프로그램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총 39개국 126편의 상영작과 부대 행사로 관객들을 맞는다. 올해도 한국과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최신 화제작을 통해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창작의 흐름을 소개하고, 창작자들과 산업 관계자들을 연결하며, 관객들이 더욱 친근하게 다큐멘터리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DMZ Docs에서 만나는 한국 다큐멘터리의 오늘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27편의 장편, 22편의 단편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다큐멘터리의 오늘을 조명한다. 소재와 형식 모두에서 진지한 고민을 제시하면서, 지금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작품들이다. 작품들의 양적, 질적 성장을 반영하여, 국제 경쟁과 한국 경쟁, 단편 경쟁 등 경쟁 부문과 한국다큐쇼케이스, 글로벌 비전, 오픈시네마, 청소년 부문 등 다양한 부문을 통해 소개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해에 이어 한국의 다큐멘터리 창작 공동체를 조명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올해는 부산을 거점으로 10년째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오지 필름’의 궤적을 살펴본다. 상영과 함께 진행되는 무대 인사, 토크, 포럼 등을 통해 한국 다큐멘터리를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지형도 그리기

아시아를 대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제라는 비전을 보다 확고하게 보여주는 기획으로 관객을 만난다. 특별전과 연계 행사로 구성된 DMZ-POV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기록 너머의 기록”과 “지금, 여기, 아시아” 특별전이 그것이다. “기록 너머의 기록”은 일본과 한국 모두의 기록에서 배제된 재일조선인 다큐멘터리를 조명한다. 총 4편의 작품을 통해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경계 사이에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사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막작으로 선정된 양영희 감독의 〈수프와 이데올로기〉, 한국 경쟁에서 상영되는 〈차별〉 등의 작품과 함께 보면 재일조선인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보다 깊고 풍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여기, 아시아”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지원한 작품을 통해 아시아 실험영화의 가능성과 다양성을 탐구하는 기획이다. 아시아의 주목할 만한 작가들이 내놓은 3편의 신작을 통해 동시대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 다큐멘터리의 산실이자 가교, DMZ인더스트리

2019년 신설된 DMZ인더스트리는 기획개발부터 제작, 후반제작에 이르는 전체 제작단계를 지원하도록 구성된 제작지원 및 피칭 프로그램이다. 올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는 DMZ인더스트리의 결실을 만날 수 있다. 상영작 중 8편의 장편과 2편의 단편이 DMZ인더스트리를 거쳐 소개된 작품들로, 기대에 걸맞는 완성도와 작품성을 보여준다. DMZ인더스트리를 통해 지원한 프로젝트들이 완성된 후 영화제를 통해 소개되는 선순환 구조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올해 DMZ인더스트리 행사를 통해 새로운 지원작들도 만날 수 있다. 상반기 진행한 소재개발, 기획개발, 제작 및 후반제작 지원 사업에 이어, ‘DMZ Docs Pitch’를 통해 전도유망한 아시아 및 한국 프로젝트들이 영화제 기간 중 다큐멘터리 산업 관계자들에게 소개된다. 2019년 첫발을 내딛은 아시아 다큐멘터리 유관기관 대표자 회의인 ‘독아시아(DOCASIA)’의 활동 역시 계속 진행 중이다. 7월에 개최된 칸 영화제 기간 중 ‘칸 독스(Cannes Docs)’ 협력 영화제로 참여하여 아시아 다큐멘터리 영화제들의 온라인 포럼 ‘독 토크(Doc Talk)’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주요 다큐멘터리 영화제, 산업 플랫폼을 잇는 가교 역할을 계속 수행할 계획이다.

### 다큐멘터리 관객 스펙트럼의 다양화

다양한 관객들이 참여하여 다큐멘터리 영화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기획을 준비했다. 우선, 작품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작품을 상영하는 ‘오픈 시네마’ 섹션을 통해 공연 등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작품과 연계된 미니 콘서트와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 등이 그것이다. 다큐멘터리의 대중성과 장르적 확장성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큐멘터리가 생소한 관객들에게 영화제의 문턱을 낮추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방식도 소개한다. ‘위드 DMZ(with DMZ)’는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는 유명인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 토크 프로그램. 배우 예지원, 이홍내, 유태오, 뮤지션 선우정아와 콰온정 음향 엔지니어, 소설가 김광희, 그리고 ‘국민MC’ 송해 선생이 파트너로 참여하여 관객을 만난다.

###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개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VoDA(보다)’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시작한다. 우선 영화제 기간 중에는 주 상영관인 메가박스 백석에서의 상영과 병행하여, 온라인으로도 상영작을 관람할 수 있다. 현장 참가가 힘든 관객 및 영화계 관계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영화제를 즐길 수 있다. 영화제 이후에도 온라인을 통한 상영은 계속된다. 오는 10월부터 VoDA를 다큐멘터리 전용 OTT 서비스로 전환하여,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기존 상영작을 포함하여 국내외의 다양한 다큐멘터리들을 선보인다. 지금까지 운영한 ‘랜선영화관 다락’과 다큐멘터리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인 ‘독 스쿨’ 역시 VoDA를 통해 계속해서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 개막작 Opening Film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수프와 이데올로기〉를 개막작으로 선정했다. 〈디어 평양〉, 〈굿바이평양〉, 〈가족의 나라〉 등 평범하지 않은 가족사를 통해, 재일조선인들이 겪은 이산의 문제에 관해 발언해 온 양영희 감독의 신작이다. 이 작품은 감독이 겪게 된 가족의 변화에서 출발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감독은 일본인 남편과 결혼한다. 알츠하이머를 앓으며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는 딸에게 오랫동안 숨죽여 간직한 옛이야기를 들려준다. 바로 자신이 열여덟 살 되던 해 경험한, ‘제주 4.3’ 사건이다. 그렇게 〈수프와 이데올로기〉는 지금껏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서술하던 감독의 가족사를 남한과의 관계로 확장한다. 그것은 곧 식민과 분단, 냉전이 중첩된 경계에서 살아가는 재일조선인들의 역사적 맥락이 확장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데올로기적 폭력으로 얼룩진 역사의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개인적 기억과 집합적 기억을 섬세하게 엮어내는 양영희 감독. 그녀가 카메라를 들고 걸어온 여정은 관객들에게 진정한 이해와 화해의 의미를 일깨울 것이다.

# 개막작

수프와 이데올로기 Soup and Ideology

양영희 YANG Yong-hi



일본, 한국 | 2021 | 118

## 시놉시스

2009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일본에 남은 것은 어머니와 딸 뿐이었다. 혼자 사는 노모가 걱정된 딸은 매달 도쿄에서 오사카의 본가를 찾아가기 시작한다. 그러한 딸에게 어머니는, 문득 당신이 제주 4.3의 체험자라는 말을 꺼낸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가슴 속 깊은 곳에 묻어둔 기억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어머니는 자신이 제주 4.3에 어떻게 관련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세계 각국의 다큐멘터리 경향과 신작을 소개하는 섹션. 한국과 아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하며, 작품성이 높고 평화·소통·생명의 가치를 환기하는 작품을 선정하여 흰기러기상(상금 20,000,000원)과 심사위원 특별상(10,000,000원)을 수여한다,

2021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국제 경쟁 부문에는 총 12편의 장편이 선정되었다. 우선 각국의 다양한 흐름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과 아시아 작품을 보다 글로벌하게 조명하는데 주력했다. 더불어, DMZ인더스트리 펀드를 통해 제작지원을 한 작품들을 한국 관객들에게 처음 소개하는데도 큰 의미를 두고 작품 선정에 임했다.

올해 선정작들은 내전과 냉전 등 역사적 문제부터 코로나19, 이주 노동, 불평등, 환경, 성소수자의 현실과 같은 시의성 높은 이슈까지 다채로운 소재를 다루고 있으며, 형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고민과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개막작이기도 한 〈수프와 이데올로기〉는 비상한 가족사를 통해 재일조선인의 문제에 천착해 온 양영희 감독의 신작이다. 〈올보 권투부〉와 〈카운터스〉로 재일조선인을 다루어 온 이일하 감독은 유명 드랙퀸, 모어의 일상을 담아 특유의 감각적 영상미와 유려한 스토리텔링을 선보인다. DMZ 인더스트리 최우수 프로젝트 선정작이다.

또 다른 DMZ 인더스트리 펀드 지원작인 〈두 개의 별〉은 쓰촨성 지진 이후 새 아이를 갖게 된 두 가족을 오랫동안 따라가며, 중국의 출산 정책과 가족 정체성의 변화를 포착한다. 테살로니키다큐멘터리영화제를 통해 처음 공개된 〈달려라 소년〉은 네이멍구 지역의 동토에서 미래를 위해 육상에 열중하는 소년들의 모습을 따뜻하고 생생한 카메라로 비춘다. 한편 〈강은 흐르고, 굽이치고, 지우고, 되비춘다〉는 코로나19 유행 초기 우한의 풍경을 담은 작품. 미국을 기반으로 중국 사회를 기록 중인 주성저 감독의 신작이다.

〈프레지던트〉는 짐바브웨의 민주화를 다루어온 카밀라 닐손 감독의 신작이다. 2018년 짐바브웨 대선에 용기있게 도전한 젊은 정치인을 조명하여 선댄스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세네갈 다카르에서는 고다르의 〈중국여인〉에 출연한 활동가이자 예술가인 오마르 불론딘 디옌의 이미지와 삶을 재소환하는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다. 빈센트 미슨 감독의 〈저스트 어 무브먼트〉로 실험적인 접근과 첨예한 정치적 의식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로저 코렐라 감독의 〈창문 없는 방〉은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일하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을 기록하면서, 중동의 외국인 차별 제도인 ‘카팔라 제도’의 문제를 고발한다. 〈나의 베트남〉은 30년 전 독일로 이주한 베트남인 부부의 일상을 담으면서 이주가 만들어낸 물리적, 심리적 풍경을 포착한다. 포르투갈의 젊은 감독 디오고 페레이라의 〈공동의 삶〉은 리스본 외곽의 철거 직전의 마을에서 사는 노부부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두고, 자신들의 일상을 지키려는 이들의 모습을 서정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남미에서 제작된 두 편의 작품을 경쟁에서 만날 수 있다. 〈젯빛 하늘 아래에서〉는 정유 공장이 늘어진 베네수엘라 광야의 풍경을 담아낸다. 그 어두운 풍경과 국경 지대를 오가는 군인들과 이주자들이 이 지역에 드리운 위기의 그림자를 대변한다. 〈페루의 위안부〉는 1984년 페루의 군인들에게 끌려가 성노예로 살아야 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나선 여성들의 용기와 함께, 전쟁의 폭력이 그녀들에게 남긴 상흔을 나직하게 보여준다.

국제경쟁

제목	감독명	국가명   연도   러닝타임
두 개의 별 After the Rain	판지안 FAN Jian	중국   2021   104
모어 I am More	이일하 LEE Ilha	한국   2021   90
저스트 어 무브먼트 Just a Movement	빈센트 미슨 Vincent MEESEN	벨기에, 프랑스   2021   110
달려라 소년 Keep Running	쑤거팅 SUN Geting	중국   2021   90
공동의 삶 Life in Common	디오고 페레이라 Diogo PEREIRA	포르투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020   76
마이 베트남 My Vietnam	히안 마이 / 팀 엘리치 Hien MAI / Tim ELLRICH	독일, 오스트리아   2020   70
프레지던트 President	카밀라 닐손 Camilla NIELSSON	덴마크, 미국, 노르웨이, 짐바브웨   2021   116
강은 흐르고, 굽이치고, 지우고, 되비춘다 A River Runs, Turns, Erases, Replaces	주성저, ZHU Shengze	미국   2021   87
창문 없는 방 Room without a View	로저 코렐라 Roser CORELLA	오스트리아, 독일   2020   73
젯빛 하늘 아래에서 So Foul a Sky	알바로 F. 풀페이로 Alvaro F. PULPEIRO	콜롬비아, 스페인, 영국   2021   83
페루의 위안부 Soldier's Woman	패트리샤 비세 리소 Patricia WIESSE RISSO	페루   2020   83
수프와 이데올로기 Soup and Ideology	양영희 YANG Yong-hi	일본, 한국   2021   118

## 아시아경쟁

# Asian Competition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오늘을 만날 수 있는 섹션. 아시아의 최신작과 주목 받는 작가들의 신작을 소개하는 경쟁 부문으로, 아시아의 시선상을 선정하여 상금 15,000,000원을 수여한다.

올해 아시아 경쟁 부문에는 8개국 10편의 장편이 상영된다.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작품들이 고루 선정되었으며, 동시대 아시아의 첨예한 이슈를 다루는 작품들이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공동체에 관한 작업을 꾸준히 진행 중인 고모리 하루카가 세오 나츠미와 함께 연출한 〈더블 레이어드 타운〉은 재난 이후의 공동체의 모습과 함께 재난을 기억하는 다큐멘터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DMZ인더스트리 제작지원작인 〈바다에서 마지막 날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고향을 떠난 한 필리핀 여춘 소년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삶의 변화에 대해 질문하도록 이끈다. 공동체에 위기를 가져오는 것은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다. 〈굴레〉는 자살률이 폭증하는 몽골의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작품. 자살 생존자들과 남겨진 사람들의 절박한 이야기를 담는 한편, 몽골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한다. 〈불타는 숲〉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끊이지 않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신의 숲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따라간다. 그가 상대하는 것은 자연이 아니다. 대규모 개간 사업으로 우림의 파괴를 초래하고, 개인의 삶을 궁지로 몰아넣은 국가다. 이란 국경의 산악 지역에서 집꾼으로 일하는 쿠르드인 남자를 통해 사회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이들의 삶과 노동을 바라보는 〈성스러운 빵〉, 1982년 소련의 침공 당시 이란으로 이주한 아프가니스탄 가족의 역사와 현재를 다루고 있는 〈실루엣〉은 사회 문제를 직시하는 이란 다큐멘터리의 시사적 경향을 여실히 보여준다. 〈마니석 돌담〉은 티벳의 한 마을에 세워진 천막학교를 둘러싼 이야기를 그린다. 중국인 교사들과 주민들의 갈등을 지긋이 바라보면서, 중국의 소수민족에 얽힌 복잡한 동학을 읽어낸다.

한국의 사회 현안과 겹쳐보면서 아시아적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작품들도 눈에 띈다. 일본 이바라키현에 있는 이주자 수용소에 수용된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난민, 이민 제도와 외국인 인권 문제를 다루는 〈우시쿠〉, 스마트폰을 들고 인도의 여성 인권 보호에 나선 달리트(불가촉 천민) 출신 여성 언론인들의 용기 있는 싸움을 그린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쏘다〉, 최근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대만을 배경으로 지난 30년간 에이즈 감염인 인권 운동을 벌여온 한 활동가의 삶을 돌아보는 〈여명을 기다리며〉는 한국의 이주, 여성, 소수자 문제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 아시아경쟁

제목	감독명	국가명   연도   러닝타임
더블 레이어드 타운 Double Layered Town / Making a Song to Replace Our Positions	고모리 하루카, 세오 나츠미 KOMORI Haruka, SEO Natsumi	일본   2019   79
성스러운 빵 Holy Bread	라힘 자비히 Rahim ZABIHI	이란   2020   54
바다에서 마지막 날 Last Days at Sea	베니스 아티엔사 Venice ATIENZA	필리핀   2021   72
불타는 숲 The Flame	아르판 사브란 Arfan SABRAN	인도네시아   2021   76
마니석 돌담 The Mani Stone Wall	궈헝치 GUO Hengqi	홍콩, 중국   2021   107
실루엣 The Silhouettes	아프사네 살라리 Afsaneh SALARI	이란, 필리핀   2020   80
굴레 The Wheel	노민 르크바수렌 Nomin LKHAGVASUREN	몽골   2020   53
우시쿠 Ushiku	토마스 애쉬 Thomas ASH	일본   2021   87
여명을 기다리며 When the Dawn Comes	장홍지에 ZHANG Hongjie	대만   2021   60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쏘다 Writing with Fire	린투 토마스, 수쉬미트 고쉬 Rintu THOMAS, Sushmit GHOSH	인도   2021   93

## 한국경쟁

# Korean Competition

한국 다큐멘터리의 최신 우수작을 만날 수 있는 섹션. 한국 사회 곳곳을 짚어내는 장이다. 최우수한국다큐멘터리상을 선정하여 15,000,000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올해 한국 경쟁 부문에는 높은 시의성과 성찰적 태도를 갖춘 작품들이 고루 포진되어 있다. 총 10편의 상영작 중에는 여성, 사회적 참사, 코로나19, 재개발, 아동 등 다양한 소재로 한국 사회를 면면을 반영하는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 외부를 향해 적대의 전선을 긋기보다는 내부를 바라보며 공동체의 의미와 조건을 성찰하는 최근의 경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작품들을 살펴보면, 몸과 섹슈얼리티를 주제로 여성 해방을 이야기하는 페미니스트 단체 ‘불꽃페미액션’의 활동을 담은 〈바운더리〉, 세월호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경청하는 〈세월〉, 남편의 유언에 따라 뒤늦게 한글을 배우게 된 강원도 산골의 할머니의 변화를 따라가는 〈한창나이 선녀님〉, 충북 제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을 오랜 시간 촬영하며 아이들과 선생님의 성장과 변화를 담아낸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이 대표적이다. 모두 DMZ인더스트리를 거쳐 다양한 제작지원을 받은 작품들이다. 이 밖에도 인천의 도시 재생을 다루면서 지역의 역사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아주 오래된 미래도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공연을 준비해야 하는 무용수들의 힘든 여정을 따라가는 〈거의 새로운 인간〉은 시의성 높은 소재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다룬 작품들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제작되었거나 국내를 오가며 제작된 작품들도 눈에 띈다. 〈1989 베를린, 서울 Now〉는 한국에서 체류하는 독일인들에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시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통일에 관해 질문하는 작품.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는 ‘물방울 화가’로 익히 잘 알려진 고 김창렬 화백의 작품 세계를 다룬다. 김창렬 화백의 아들, 오안 김이 공동 연출을 맡았다. 고교무상화 정책에서 조선고급학교를 배제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재일조선인들과 일본 시민사회가 벌인 지난한 싸움을 기록한 〈차별〉과 일본의 한 산골 마을 공동체가 터널 공사로 인해 겪게 되는 변화를 바라보는 〈오시카무라에 부는 바람〉 역시 한국 다큐멘터리의 지리적, 소재적 경계를 넓히는 작품들이다.

## 한국경쟁

제목	감독명	국가명   연도   러닝타임
1989 베를린, 서울 Now 1989 Berlin, Seoul Now	최우영 CHOI Woo-young	한국   2021   89
바운더리 Boundary: Flaming Feminist Action	윤가현 YUN Gahyun	한국   2021   102
한창나이 선녀님 Burning Flower <b>*배리어프리 특별상영</b>	원호연 WON Ho-yeon	한국   2021   83
차별 Discrimination	김지운, 김도희 KIM Jiwoon, KIM Dohee	한국   2021   84
거의 새로운 인간 Homo Quasi Novus	백종관 PAIK Jongkwan	한국   2021   62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In the Sky Where Seasons Pass By	고한별 KO Hanbul	한국   2021   104
세월 Life Goes On	장민경 JANG Minkyung	한국   2021   98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 The Man Who Paints Water Drops	오안 김, 브리짓트 부이오 Oan KIM, Brigitte BOUILLLOT	프랑스, 한국   2020   79
오시카무라에 부는 바람 Oshika-Winds of Change	김명윤 KIM Myoung-yoon	한국   2021   87
아주 오래된 미래도시 A Tale of Old Cities	조은성 JO Eunsung	한국   2021   82



단편경쟁

Shorts Competition

아시아와 한국의 최신 단편 다큐멘터리를 만날 수 있는 섹션. 단편이기에 가능한 다양한 형식적 미학을 함께 조명한다. 최우수단편다큐멘터리상(상금 10,000,000원)과 심사위원 특별상(상금 7,000,000원)을 수여한다.

올해 단편경쟁에는 한국과 아시아 국가의 작품이 각 14편씩 선정되었다.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역사와 현실에 주목하는 작품들이 많이 눈에 띈다.

아시아 작품들을 살펴보면, 도시 곳곳에 의미심장한 그림을 남긴 한 의용 소방대원의 흔적을 쫓는 <고양이도 왕을 볼 수 있다>, 사형제를 억압의 수단으로 삼는 정권에 항의하는 몸짓을 담은 댄스 필름 <춤, 생명을 위하여>, 유년 시절 아버지가 남긴 트라우마와 대면하는 딸의 노력을 그려낸 <어떤 사랑에 관한 기억>, 다섯 여성의 삶을 통해 포스트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사를 조명하는 <마오와 아이스크림>, 옛 관습에 따라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야 했던 할머니의 이야기로 여성의 위치를 되묻는 <할머니=달걀>, 음악을 통해 세상을 만나는 시각 장애인들을 따라가는 <나의 목소리, 나의 음악>, 홀로 오래된 조선소를 돌보는 여성의 일상을 관찰하며 베트남 사회가 겪어온 변화를 되짚는 <리엔 아주머니의 오래된 조선소>가 있다.

최근 꾸준히 강세를 보이는 인도와 이란의 다큐멘터리도 선정작에 포함되었다. 기니에서 독일로 이주한 한 난민을 다룬 <검은 캔버스>, 코로나19로 대학 기숙사에 격리된 상태에서 바깥 세상을 촬영한 <패브릭>, 이란의 설원을 배경으로 남자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는 임신부의 일상을 담은 <창밖에는 눈이 쌓이고>, 티벳 여승 최초로 박사에 도전한 비구니 스님의 여정을 조명한 <게시마: 티벳 여승 이야기>, 유목의 전통을 놓고 갈등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마지막 희망>이 그것이다. 또 미얀마에서 출품된 작품이 눈에 띄는데, <새드 필름>과 <저항의 드럼 소리>는 엄혹한 미얀마의 정세에 대한 안타까움과 민주화를 향한 의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한국 작품들에서도 단편 특유의 형식적 실험과 자유로움이 돋보인다. <우리집>은 파킨슨병을 앓고 요양원에 들어간 어머니의 공간과 기억을, <메이·제주·데이>는 제주 4·3 생존자들의 증언을 애니메이션을 통해 재구성한다. <선율>은 조현병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흰 선을 활용한 애니메이션을 합쳐 절절한 울림을 만들어낸다. 다섯 명의 여성 무용수가 1993년 초연된 현대 무용극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빨래>, 미디어 작가인 차학경의 작품을 감독 자신의 삶에 비추어 재해석한 <학경>, 게임의 인터페이스를 연상시키는 영상과 탐정 서사를 통해 주한 미군 기지의 잔해를 파헤치는 <긴 복도>, 한국과 팔레스타인의 여성 작가가 주고 받는 영상 편지 <너무나 멀지만 너무도 가까운>, 중국의 버려진 유전 도시를 방랑하며 실재와 상상의 이미지를 혼용하는 <그때는 그녀에게 안부 전해줘>를 통해서도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형식적, 예술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사라지는 공간, 인물의 역사, 소수자의 정체성을 통해 한국 사회를 사유하는 다큐멘터리 작업들도 계속되고 있다. <들랑날랑 혼삿길>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놓고 고민하는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해피해피 이혼 파티>는 엄마의 이혼 기념일을 준비하는 딸들의 이야기를 재기발랄하게 담는다. <농몽>은 촛불 집회가 열린 광장의 기억을 돌아보면서 촛불을 들지 못하고, 따라서 광장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환기하며, <M의 유래>는 식민과 해방을 거친 한 사람의 삶을 조용히 되짚으며, 그가 가졌던 여러 이름과 정체성의 의미를 되묻는다. <숨은지혜찾기>와 <산 23-1, X> 각각 인천과 부산의 마을을 배경으로 사라져가는 공간의 의미와 역사를 기록한다.

단편경쟁

제목	감독명	국가명   연도   러닝타임
검은 캔버스 Black Canvas	시린 에클라시 Shirin EKHLASI	이란, 독일   2020   17
고양이도 왕을 볼 수 있다 A Cat May Look at a King	정즈밍 CHENG Chih-ming	대만   2020   24
춤, 생명을 위하여 Dance for Life	베이비 루스 빌라라마 Baby Ruth VILLARAMA	필리핀   2021   11
어떤 사랑에 관한 기억 Days of Love	쑤웨친 SU Yueqin	홍콩   2021   23
패브릭 The Fabric	이만 베로우지 Iman BEHROUZI	이란, 독일   2021   14
게시마: 티벳 여승 이야기 The Geshema is Born	말라티 라오 Malati RAO	인도, 네팔   2020   56
학경 Hak Kyung	김희진 KIM Heejin	한국   2021   23
해피해피 이혼파티 Happyhappy Divorceparty	남순아 NAM Soona	한국   2021   24
그때는 그녀에게 안부 전해줘 If You See Her, Say Hello	자준 오스카 장, 변희영 Jiajun Oscar ZHANG, PYUN Hee-young	중국   2020   18
들랑날랑 혼삿길 I Smell Wedding Bells	홍민키 HONG Minki	한국   2021   40
마지막 희망 The Last Hope	라자 샤비르 모하마드 Raja Shabir Mohd KHAN	인도   2020   50
긴 복도 The Long Hole	정여름 JEONG Yeoreum	한국   2021   36
리엔 아주머니의 오래된 조선소 Madame Lien's Factory	응우옌 투 호영 NGUYEN Thu Huong	베트남   2020   32
마오와 아이스크림 Mao's Ice Cream	장자루, 브린두사 로아나 나스타사, 애나벨라 스티렌 ZHANG Jialu, Brindusa Ioana NASTASA, Annabella STIEREN	중국, 독일   2020   28

단편경쟁

제목	감독명	국가명   연도   러닝타임
메이 • 제주 • 데이 May • JEJU • Day	강희진 Jude KANG	한국   2021   14
선율 Melody	김윤정 KIM Younjeong	한국   2021   13
할머니=달걀 My Grandmother is an Egg	장우징 CHANG Wuching	대만, 영국   2021   9
나의 목소리, 나의 음악 My Voice My Music	찬아웬 CHAN Yawen	중국   2021   20
산 23-1, X Nowhere to Go	이민호 LEE Minho	한국   2021   14
우리집 Our Home	이오은 LEE Oh-eun	프랑스, 한국   2020   11
빨래 Pallae: Womanhood Story	박소현 PARK Sohyun	한국   2021   25
농몽 Paraffin Dream	권순현 KWON Soonhyeon	한국   2020   39
새드 필름 Sad Film	바실리 Vasili	미얀마, 네덜란드   2021   12
창밖에는 눈이 쌓이고 The Snow Calls	마르얀 코스라비 Marjan KHOSRAVI	이란   2020   49
너무나 멀지만 너무도 가까운 So Far, yet Too Close	최민경, 디나 미미 CHOI Minkyung, Dina MIMI	한국, 팔레스타인   2021   39
숨은지혜찾기 Space Baedari	임기웅 LIM Kiwoong	한국   2020   42
저항의 드럼소리 Strike with the Beat	사이 초 카잉 Sai Kyaw KHAING	미얀마   2021   25
M의 유래 Telltale	장원석 JANG Wonsuk	한국   2021   38

글로벌 비전

Global Vision

해외 수상작이나 화제작 및 주요 감독들의 신작을 소개하는 섹션.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지향하는 평화, 소통, 생명의 가치를 담은 작품들을 만나고, 세계 다큐멘터리계의 오늘과 내일을 전망할 수 있는 섹션이다.

올해 글로벌 비전에서는 20편의 장편과 4편의 단편이 상영된다. 세계 각국의 최신작들로, 난민부터 여성, 장애, 노동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와, 관찰 다큐멘터리에서 실험적인 이미지 활용까지 여러 형식을 망라한다. 올해 글로벌 비전 섹션의 특징 중 하나는 감독들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거장, 중견, 신인 감독들의 작품이 고르게 선정되었다. 우선, 놀라운 데뷔작을 선보이며 각국 다큐멘터리 영화계의 미래로 주목받고 있는 감독들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 중국 사회의 면면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며 트라이베카영화제 장편 다큐멘터리 대상을 받은 〈중국몽〉, 이집트 카이로의 광장에서 벌어진 반성폭력 집회를 따라가면서 감독 자신이 팔레스타인에서 보낸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를 대면하는 〈내가 원하는 것〉, 요르단의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며 축구 선수의 꿈을 키우는 난민 출신 청년들의 여정을 담은 〈자타리의 축구 선수들〉, 트랜스젠더 남성으로 살아갈 것을 선택한 16세 토비와 그의 가족들을 다룬 〈토비의 선택〉, 중국의 작은 마을 우칸의 주민들의 강제 토지수용 반대 시위에 6년간 함께하며 만든 〈로스트 코스〉, 끔찍한 성폭력의 경험을 자전적으로 서술하면서 치유와 정의의 실현을 모색하는 〈어둠을 바라보는 법〉, 물질주의의 바람 앞에 전통과 믿음을 잃어가는 중국 소수민족 마을의 풍경을 담은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 예술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바꾸어가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조명하면서 피아영화제 대상을 받은 〈변신!〉, 홍콩과 마카오 등지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큐-드라마 형식으로 다룬 〈데아〉를 통해, 세계 다큐멘터리 영화의 새로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꾸준히 창작을 이어가는 중견 감독들의 완성도 높은 신작들도 있다. 대만과 미얀마를 오가며 지속적으로 작업 중인 리옹자오는 〈미얀마의 소년병〉을 통해 미얀마 카친 독립군(KIA) 소속이었던 한 소년병의 이야기를 통해 전쟁이 인간에게 남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을 이야기한다.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세월호 다큐멘터리 〈부재의 기억〉에 편집감독으로 참여하기도 했던 토드 캔들러 감독은 미국 학교의 총기 문제를 다룬 〈방탄 학교〉를 선보인다. 이밖에 브라질 아마존의 땅에 얽힌 독재와 학살의 기억을 증언하는 〈에드나〉, ISIS에 성노예로 잡힌 여성들을 구출하는 활동가들의 용기있는 활동을 다룬 〈사바야〉, 이미지의 스펙터클이 만들어내는 동시대의 지리적 감각을 탐구하는 〈스트라툼2〉, 코로나19 시대, 영상 메시지를 통한 소통을 시도하는 〈메이데이〉가 있다. 이밖에 〈프랑스 영화학교 전쟁〉으로 국내 관객에게도 익히 알려진 클레르 시몽, 러시아의 다큐멘터리 거장 빅트로 코사코프스키, 캄보디아 출신으로 극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오가며 역사성과 예술성 높은 작업을 해 오고 있는 리티 판, 난민을 다룬 작품들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이탈리아의 거장 지안프랑코 로시, 중국의 거장 지아장커의 신작을 글로벌 비전-마스터즈 섹션에서 만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비전에 포함된 네 편의 단편을 통해 다큐멘터리의 예술적 성취를 만끽할 수 있다. 백종관의 〈그들의 우리의 응시에 응답한다〉, 잉랑의 〈마음의 세계〉, 리커신의 〈거울〉, 리아오지에카이의 〈기억에 관하여〉는 다큐멘터리의 미학적 도전을 느낄 수 있는 수작들이다.



글로벌비전

제목	감독명	국가명   연도   러닝타임
중국몽 Ascension	제시카 킹던 Jessica KINGDON	미국   2021   96
내가 원하는 것 As I want	사마허 알카디 Samaher ALQADI	이집트, 팔레스타인, 독일 외   2021   88
미안마의 소년병 The Bad Man	리용자오 LEE Yongchao	대만   2021   76
방탄학교 Bulletproof	토드 찬들러 Todd CHANDLER	미국   2020   83
자타리의 축구 선수들 Captains of Zaatari	알리 엘 아라비 Ali EL ARABI	이집트   2021   73
토비의 선택 Colors of Tobi	알렉사 바코니 Alexa BAKONY	헝가리   2021   81
데아 Dea	알베르토 제로사 Alberto GEROSA	스위스, 홍콩, 인도네시아 외   2021   74
에드나 Edna	에릭 호샤 Eryk ROCHA	브라질   2021   64
로스트 코스 Lost Course	질 리 Jill LI	홍콩   2019   180
메이데이 Mayday	마리코 테츠야 MARIKO Tetsuya	일본   2020   63
어둠을 바라보는 법 Night Shot	캐롤리나 모스코소 브리세뇨 Carolina MOSCOSO BRICEÑO	칠레   2019   81
사바야 Sabaya	호기르 히로리 Hogir HIRORI	스웨덴   2021   90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 Singing in the Wilderness	천동난 CHEN Dongnan	중국   2021   98
스트라툼 2 Stratum 2: The Asthenosphere	충펑 CONG Feng	중국   2021   264

제목	감독명	국가명   연도   러닝타임
변신! Transform!	이시다 도모야 ISHIDA Tomoya	일본   2020   93
거울 Mirror, Mirror	리커신 LI Kexin	중국   2016   41
기억에 관하여 On Memory	리아오지에카이 LIAO Jiekai	싱가폴   2021   34
그들은 우리의 응시에 응답한다 They Answer Our Own Gaze	백종관 PAIK Jongkwan	한국   2021   17
마음의 세계 The World of Mindfulness	잉량 YING Liang	홍콩   2021   19

글로벌비전 – 마스터즈

Global Vision–Masters

제목	감독명	국가명   연도   러닝타임
정비소, 엔진 그리고 사람들 Garage, Engines and Men	클레르 시몽 Claire SIMON	프랑스   2021   71
군다 Gunda	빅토르 코사코프스키 Viktor KOSAKOVSKIY	노르웨이, 미국   2020   93
피폭의 연대 Irradiated	리티 판 Rithy Panh	캄보디아, 프랑스   2020   89
야상곡 Notturmo	지안프랑코 로시 Gianfranco ROSI	이탈리아, 프랑스   2020   101
먼바다까지 헤엄쳐 가기 Swimming Out Till the Sea Turns Blue	지아장커 JIA Zhangke	중국   2020   112

한국다큐쇼케이스

Korean Docs Showcase

한국 경쟁 섹션과 더불어 한국 다큐멘터리의 최신작을 만날 수 있는 섹션.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지향하는 평화, 소통, 생명의 가치와 함께 진지한 주제의식과 가치관을 담은 작품이 상영된다.

올해 한국 다큐 쇼케이스 섹션에서는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한국에서 제작된 신작 11편이 관객들을 만난다. 장애부터, 소수자, 환경, 여성, 노동,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들을 다루면서, 한국 사회의 변화하는 시선을 반영하는 작품들이다. 시각 장애인 노동주 감독의 영화 제작기를 다루는 <영화감독 노동주>와 장애인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여 살아가면서 시를 쓰는 박동수씨의 일상을 담은 <코리도라스>처럼 장애를 불능이 아닌 다름의 가능성으로 생각하는 시선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대표적이다. 그 밖에도 <너에게 가는 길>은 자녀의 커밍아웃을 마주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 소속 여성들의 활동을 따라간다. 자신의, 나아가 세상의 시선을 바꾸는 여정은 험경지만 희망을 느끼게 한다. 결혼 29년 만에 이혼한 어머니의 일상 에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깁자>, 은퇴 후 시와 그림을 그리면서 전시를 준비하는 부모님의 꿈과 희망, 사랑을 다룬 <작은새와 돼지씨>는 평범하고 사적인 것을 통해 현실을 되돌아보는 성찰이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공간과 환경에 대한 진지한 접근도 한국 다큐멘터리의 오랜 전통 중의 하나다. 재건 속과 함께 사라져가는 아파트 공간을 다룬 <봉명주공>, 재개발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상’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만든 <사상>은 자본이 아닌 인간의 시선으로 장소성을 바라보려는 지극한 정성이 느껴지는 작품들이다. 이 밖에도 1970년대 평화시장에서 일하며 청계피복노동조합에 가입한 여성 노동자들을 다룬 <미싱타는 여자들: 전태일의 누이들>, 아카이브 푸티지를 통해 판문점이라는 공간의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판문점>, 비대면 시대를 맞아 자신들이 견지해 온 예술활동의 의미를 되묻는 연극 배우들의 고민을 담은 <얼굴들>, 데뷔 40주년을 맞은 가수 정태춘과 박은옥 부부의 음악 세계를 다룬 <아치의 노래, 정태춘>을 통해 한국 다큐멘터리의 최신 경향을 만날 수 있다.

한국다큐쇼케이스

제목	감독명	국가명   연도   러닝타임
영화감독 노동주 Beyond the Sight	임찬익 LIM Chanik	한국   2021   82
너에게 가는 길 Coming to You	변규리 BYUN Gyuri	한국   2021   93
코리도라스 Corydoras	류형석 RYU Hyungseok	한국   2021   87
얼굴들 Face-to-Face	김민정 KIM Minjung	한국   2021   95
깁자 Gingja	박철환 PARK Cheolhwan	한국   2021   72
봉명주공 Land and Housing	김기성 KIM Kiseong	한국   2020   83
판문점 PAN MUN JOM, You Have Never Seen	송원근, 김용진 SONG Won-geun, KIM Yongjin	한국   2021   78
사상 Sasang: The Town on Sand	박배일 PARK Bae-il	한국   2020   132
미싱타는 여자들: 전태일의 누이들 Sewing Sisters	이혁래, 김정영 LEE Hyukrae, KIM Jung-young	한국   2020   109
작은새와 돼지씨 Small Bird and Mr. Pig	김새봄 KIM Saebom	한국   2021   76
아치의 노래, 정태춘 Song of the Poet	고영재 GOH Youngjae	한국   2021   120

오픈시네마

Open Cinema

많은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대중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섹션.

‘오픈 시네마’ 섹션은 다양한 관객들이 참여하여 다큐멘터리 영화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고양 아람누리과 파주 헤이리 등에서의 상영 연계 공연을 함께 진행하여, 다큐멘터리의 대중성과 장르적 확장성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우선, 〈K클래식 제너레이션〉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젊은 한국 클래식 음악가들을 다루는데, 작품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임지영과 영재 트리오의 미니 콘서트가 함께 진행된다. ‘국민MC’로 불리는 송해 선생을 다룬 〈송해 1927〉에도 대중음악 가수의 공연이 이어져 관람의 재미를 더한다. 이밖에 영상작가 장민승과 음악감독 정재일이 협업한 〈동글고 동글게〉는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 형태로 상영된다. 섹션 상영작들이 다루는 다양한 소재들 중 예술가를 다룬 작품들도 눈에 띈다. 최초의 여류 추상화가를 다룬 〈힐마 아프 클린트: 미래를 위한 그림〉, 지속가능한 패션 산업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리-패션〉 외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파도 위에 서려는 십 대 서퍼의 도전을 따라가는 〈파도 위의 소년〉, 지난 50년간 영국 록 음악의 산실로 자리잡은 락필드 스튜디오의 역사를 돌아보는 〈락필드: 스튜디오 온 더 팜〉 등이 있다. 영화감독을 다룬 작품들도 시네필 관객의 눈을 사로잡는다.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영화감독 페데리코 펠리니의 작품들을 토대로 만든 〈펠리노폴리스〉, 홍콩 뉴웨이브를 이끈 허안화 감독의 삶을 다룬 〈허안화: 행복한 영화〉, 포르투갈의 시네아스트 페드로 코스타의 전시를 기반으로 한 〈그림자의 대화〉를 통해 거장 감독들의 작품 세계를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픈시네마

제목	감독명	국가명   연도   러닝타임
힐마 아프 클린트 - 미래를 위한 그림 Beyond the Visible - Hilma af Klint	할리나 디르스초카 Halina DYRSCHKA	독일   2019   94
상탈 애커만+페드로 코스타 Chantal + Pedro	줄리오 알베스 Júlio ALVES	포르투갈   2020   8
그림자의 대화 Dialogue of Shadows	줄리오 알베스 Júlio ALVES	포르투갈   2021   60
펠리노폴리스 Fellinopolis	실비아 줄리에티 Silvia GIULIETTI	이탈리아   2020   79
K클래식 제너레이션 K-Classics Generation	티에리 로로 Thierry LOREAU	벨기에   2020   72
허안화: 행복한 영화 Keep Rolling	만림중 MAN Limchung	홍콩   2020   113
로그 인 벨지움 Log in Belgium	유태오 YOO Teo	한국   2021   65
리-패션 ReFashioned	조안나 바워스 Joanna BOWERS	홍콩   2021   84
파도 위의 소년 Ride the Wave	마틴 로버트슨 Martyn ROBERTSON	영국   2021   86
락필드: 스튜디오 온 더 팜 Rockfield: The Studio on the Farm	한나 베리만 Hannah BERRYMAN	영국   2020   92
동글고 동글게 Round and Around	장민승 JANG Minseung	한국   2020   88
송해 1927 Song Hae b. 1927	윤재호 Jero YUN	한국   2021   82
*배리어프리 특별상영		

## 청소년 섹션

# Youth Docs Showcase

청소년 섹션은 오늘의 한국을 살아가는 십 대들의 고민과 비전을 만날 수 있는 부문이자, 한국 다큐멘터리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장이다.

## 청소년 섹션

제목	감독명	국가명   연도   러닝타임
우리와 오지마세요 Back to the Basics	강채린 KANG Chaerin	한국   2021   21
#용기내! Container for Courage	송지현 SONG Jihyun	한국   2021   12
공단 민들레 Dandelion for Industry	이승훈, 조도영, 김재민, 안다솔 LEE Seunghoon, CHO Do-young, KIM Jaemin, AHN Dasol	한국   2020   18
없는 존재 The Invisible	박예린 PARK Yerin	한국   2021   10
학생이 행복한 도시 : Like a Student Like a Student	임채민 LIM Chaemin	한국   2021   19
맘맘미아 Mam Mam Mia	이용길 LEE Young-gil	한국   2020   30

## 배리어프리 상영작

제목	감독명	국가명   연도   러닝타임
한창나이 선녀님 Burning Flower	원호연 WON Ho-yeon	한국   2021   83
송해 1927 Song Hae b. 1927	윤재호 Jero YUN	한국   2021   82

올해 청소년 섹션에서 상영되는 여섯 작품을 통해서도 청소년들만의 언어와 시선을 엿볼 수 있다. 〈우리와 오지마세요〉는 영화과에 진학한 후, 영화에 대한 열정을 다시 얻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진솔하게 담아내고, 〈맘맘미아〉는 뮤지컬 영화 제작에 도전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따라간다. 미래를 고민하는 것만이 아니라 개척하려는 청소년들의 용기를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이다. 배달 쓰레기 문제를 깨달은 후 환경보호 캠페인에 참여한 일주일을 담은 〈#용기내!〉와 자신이 살던 지역에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을 깨닫고 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이 행복한 도시 : Like a Student〉를 통해서도 청소년들을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다큐멘터리의 힘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온산의 공단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공단 민들레〉와 노키즈존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차별받는 상황을 다룬 〈없는 존재〉는 평범한 일상을 비판적이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응시하는 다큐멘터리의 초심을 생각하게 한다.

# 13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DMZ-POV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DMZ-POV

## DMZ-POV

DMZ-POV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기간 중 열리는 다큐멘터리 영화 담론의 장이다. 학술 발표와 강연, 대담과 퍼포먼스를 비롯한 다양한 상영 연계 행사를 통해 다큐멘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안한다. 올해는 “아시아 다큐멘터리 지형도 그리기” 기획을 확장하는 한편, 동시대 다큐멘터리의 쟁점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 아시아 다큐멘터리 지형도 그리기 1 기록 너머의 기록: 재일조선인 다큐멘터리

재일조선인들은 일본에서 오랜 시간 동안 침묵당하고 기록에서 배제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국민국가의 기록 너머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해 온 사람들이 있다. 일본과 한국 모두의 기록에서 배제된 재일조선인 다큐멘터를 조명한다. 식민과 냉전의 자장 속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해 온 재일조선인들의 작업은 내셔널 시네마의 역사적, 공간적 경계 사이/너머에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사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상영작	〈숨겨진 손톱자국: 간토대지진〉, 〈해방의 그 날까지 - 재일조선인의 발자취〉, 〈또 하나의 히로시마 - 아리랑의 노래〉, 〈해녀 양씨〉
학술대회 일정	9월 12일(일) 13:00
학술대회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패널/게스트	김소혜 (영화연구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전문위원), 조은애 (동국대학교 교수), 쇼타 오가와 (나고야대학교 교수)

### 아시아 다큐멘터리 지형도 그리기 2 지금, 여기, 아시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시네마펀드와 연계하여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의 작가들을 조명하며, 나아가 지금 아시아의 다큐멘터리가 가지는 경향에 주목해 보는 기회를 가진다.

상영작	〈시대착오적 연대기: 아시아 안팎의 항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 〈스틸 사이드〉
시네토크 일정	9월 12일(일) 16:00 〈시대착오적 연대기:아시아 안팎의 항해〉 +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 상영 후
시네토크 장소	메가박스 백석 8관
패널/게스트	김지하 (ACC시네마테크 프로그래머), 유운성 (영화평론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전문위원)

오지필름, 지역에서 다큐를 만든다는 것

창립 10주년을 맞은 오지필름은 독립다큐멘터리를 매개로 세상과 소통하고자 카메라를 들어왔다. 10주년 기념 책자 발간과 함께 오지필름의 영화들을 돌아보며 치열했던 지난 역사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모습을 그려본다.

상영작	〈밀양 아리랑〉, 〈얼굴의 땅〉
시네토크 일정	9월 12일(일) 13:00 〈밀양 아리랑〉 + 〈얼굴의 땅〉 상영 후
시네토크 장소	메가박스 백석 3관
패널/게스트	권혜린, 김주미, 문창현, 박배일(이상 오지필름 영화활동가), 이도훈(영화평론가)

다큐멘터리 지금 여기: 사회적 의제, 공론장, 플랫폼, 산업

경기도 소재 영화전공 대학 9개교와 예술고등학교 4개교로 구성된 ‘경기영화학교연합(GFSA)’과 미디어아트, 인터랙티브아트, 애니메이션 등 영상문화 전반을 연구하는 ‘한국영상학회’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협력을 통해 포스트 미디어,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트루스 시대인 ‘지금 여기’에서의 다큐멘터리를 고찰하고 수용 현실을 진단해보는 포럼을 개최한다. 미디어 영상학자들이 최신 다큐멘터리 이론을 소개하며, 현대 사회의 여러 이슈를 바탕으로 한 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학술대회 일시	9월 11일 (토) 13:00
학술대회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게스트/패널	정민아 (성결대학교 교수), 이도훈 (연세대학교 연계전공 강사, 영화평론가), 김내훈 (『프로보커터』 저자), 이창재 (중앙대학교 교수), 노광우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강사), 선승범 (서강대학교 대학원), 조현일 (송의여자대학교 교수), 전지윤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교수, 미디어아티스트), 최우영 (다큐멘터리 감독), 유지수 (용인대학교 교수), 감병석 (프로듀서)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포럼: 저장된 미래

공공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서 포럼을 개최한다. 영상 기록이 가진 가치와 그에 따른 다큐멘터리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한 학계, 현장 그리고 공적 기관의 대화를 통해, 영상 기록 수집 관리를 위한 새로운 공적 제도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상영작	〈판문점〉
학술대회 일시	9월 10일 (금) 13:00
학술대회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패널/게스트	최효진 (새 공공영상문화유산 정책포럼 연구위원), 전갑생 (성공회대학교 냉전평화연구센터 연구원), 장은경 (미디어엑트 사무국장), 최승호 (뉴스타파 PD),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조준형 (한국영상자료원)

경기영상위원회 공동 포럼: 다큐멘터리 프로듀서의 역할과 기능

다큐멘터리 제작 및 산업 전반에서 프로듀서들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기능과 책임에 대한 공개적 담론은 이제까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프로듀서가 가지는, 그리고 앞으로 가져야 할 역할과 의무에 대해 경기영상위원회와의 공동 주최주관 포럼을 개최한다.

학술대회 일시	9월 11일 (토) 18:00
학술대회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게스트/패널	김옥영(㈜스토리온 대표, 다큐멘터리 작가 겸 프로듀서), 감병석(프로듀서 겸 감독), 김선아(프로듀서), 강호준(㈜콘텐츠 나무 감독), 박혜령(하얀소 엔터테인먼트 대표 겸 감독)

13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WITH DMZ

워드 DMZ

워드 DMZ

다큐멘터리를 사랑하고 다큐멘터리의 친구들을 자처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게스트로 참여하는 특별 프로그램. 게스트들은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에서 상영작 중 한 편을 각각 선정하여 관객들과 함께 관람하고, 상영 후에는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일정	작품명	참여 인사	비고
9/10(금) 19:00	리-패션	임선옥 (파츠파츠 디자이너)	
9/12(일) 17:00	송해 1927	송해 (방송인)	Docs on STAGE 특별상영으로 진행
9/12(일) 19:00	군다	김금희 (소설가)	
9/13(월) 19:00	락필드: 스튜디오 온 더 팜	선우정아 (뮤지션) & 곽은정 (음향 엔지니어)	
9/14(화) 19:00	모어	이홍내 (배우)	
9/15(수) 19:00	너에게 가는 길	예지원 (배우)	
9/16(목) 14:00	로그 인 벨지움	유태오 (배우)	게스트 일정으로 인해 토크 프로그램은 미진행

※ 게스트의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13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EVENT

행사

## 특별행사

### Docs on STAGE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진행되는 Docs on STAGE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주요 개최지인 고양시 시민들에게 재미있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한국 클래식 연주자를 다룬 다큐멘터리와 전국민이 사랑하는 방송인, MC송해의 숨겨진 얼굴을 탐구하는 인물 다큐멘터리, 사진, 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공연융합영상 프로젝트를 실험하는 예술성 높은 작품을 상영하고, 관련한 공연을 선보인다.

일정	다큐멘터리 상영작	공연 및 토크콘서트 프로그램 및 출연진
9월 10일(금) 19:00	K클래식 제너레이션	임지영(바이올린) & 박영성(피아노)과 김가은(바이올린) & 권지우(첼로) & 박혜림(피아노) 의 클래식 공연
9월 11일(토) 17:00	송해 1927	송해 선생님의 사회로 초대가수 나태주와 스페셜 게스트 예지원의 공연으로 구성
9월 14일(화) 19:00	둥글고 둥글게	스페셜 게스트 :장민승 감독, 정재일 음악감독

# 13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DMZ INDUSTRY

DMZ 인더스트리

## DMZ인더스트리

### 1. DMZ인더스트리 개요

#### 다큐멘터리 ‘원스톱’ 지원 플랫폼, DMZ인더스트리

DMZ인더스트리는 한국 및 아시아의 전도유망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발굴해 기획개발 단계에서부터 제작, 투자유치, 후반작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큐멘터리 제작 활성화를 위한 입체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한국 다큐멘터리 글로벌 진출의 전초기지, DMZ인더스트리

DMZ인더스트리는 한국 다큐멘터리에 특화된 펀딩 및 피칭 프로그램,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등 체계적인 서비스로 작품의 완성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기울인다. 또한, 해외에서도 그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동 제작, 투자 유치, 해외 판로 주선 등 비즈니스 기회를 마련해 한국 다큐멘터리 해외 진출의 든든한 교두보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종합 산업 허브, DMZ인더스트리

DMZ인더스트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다큐멘터리 특화 영화제로써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지난 10년간 축적해 온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획된 산업 전문 플랫폼이다. 국내외 산업 관계자들과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제 공동제작 및 글로벌 배급은 물론, 영화, 방송의 다양한 포맷과 장르를 아우르는 비즈니스 기틀을 다져 명실상부한 다큐멘터리의 종합 산업 허브로서 도약하려 한다.

#### 인터아시아 (INTER-ASIA) 다큐멘터리 협업의 중심, DMZ인더스트리

DMZ인더스트리는 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주요 다큐멘터리 영화제, 산업 플랫폼과 긴밀한 연대를 이어가 아시아 다큐멘터리 창작자 간 교류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한층 강화한다. 아시아 지역 고유의 영화 언어와 다양성으로 무장한 다큐멘터리 정신을 한데 모아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가치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연대와 협업의 기반을 공고히 다져 나갈 계획이다.

2. DMZ인더스트리 세부 사업 소개

– DMZ Docs Fund

‘DMZ Docs Fund’는 지난 10년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을 위해 진행해 온 ‘DMZ 제작지원’ 사업에서 한층 확장된 프로젝트이다. 기획개발부터 제작, 후반작업 단계에 걸쳐 20편 내외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선정하며, 제작지원금과 현물지원 등 다방면으로 우수 프로젝트 완성과 공개를 지원한다.

	기획개발펀드	제작펀드	후반작업지원펀드
선정 편수	한국 및 아시아 10편	한국 2편, 아시아 1편	한국 2편
대상	제작 30% 미만 단계의 프로젝트	• 제작 30~70% 단계 프로젝트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프리미어 상영을 위한 퍼스트룩 옵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 접수 당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출품작 • 촬영 및 편집 완료된 후반작업 예정작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프리미어 상영을 위한 퍼스트룩 옵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혜택	기획개발단계 지원금 5,000,000원	• 제작지원금 15,000,000원 ~ 30,000,000원 • 당해 DMZ Docs Lab 초청 • 당해 DMZ인더스트리 초청 및 피칭 기회 제공	접수 당해 상영 전 지정 업체를 통한 후반작업 현물 지원 (색보정, 사운드 믹싱, DCP패키징)

– DMZ Docs Pitch

‘DMZ Docs Pitch’는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에 공동제작과 투자, 배급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마련된 전문 플랫폼이다. 현재 제작 중인 프로젝트와 촬영을 완료하고 1차 편집이 마무리된 러프컷 단계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제작 단계별 구분된 피칭 행사에서 방송, 배급, 투자 등 국내외 다큐멘터리 산업 관계자 앞에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제작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경우, 작품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피칭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피칭 본 행사에 앞서 국내외 최고 다큐멘터리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사전 튜터링 프로그램 (DMZ Docs Lab) 참석 기회도 제공한다.

DMZ인더스트리 본 행사 기간에는 피칭 행사와 산업 전문가와의 1:1 미팅 등을 토대로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 제작비와 현물 작업 등 실질적인 프로젝트 완성의 추진 동력이자 공동제작, 투자 유입의 마중물이 되어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프로덕션 피치	러프컷 프레젠테이션
소개 형식	공개 피칭 프로젝트당 각 15분 (프로젝트 발표 7분+Q&A 8분)	공개 프레젠테이션 프로젝트당 각 10분 (프로젝트 발표 10분+Q&A없음)
대상	30%~70% 제작 단계의 한국 또는 아시아 프로젝트, 또는 아시아 지역의 자본이 30% 이상 투입된 국제 공동제작 프로젝트	후반작업 및 완성 단계에 있는 한국 또는 아시아 프로젝트 • 미개봉, 미방영 다큐멘터리 (영화제 상영 제외)

– DMZ Docs Match

‘DMZ Docs Match’는 프로젝트 관계자와 구매/투자결정권자(디시전메이커) 간 적극적인 교류, 선구매, 수출/투자, 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이다. 특히 다큐멘터리 산업 정보 파악이 쉽지 않은 참가자들을 위해, 아시아 다큐멘터리 창작자와 다큐멘터리 비즈니스 관계자와의 네트워킹이 풍부한 전문가를 매치메이커로 기용하여 매칭 가능성이 높은 파트너와의 1대1 미팅을 추천한다.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국내 행사 현장을 방문하지 못하는 해외 산업 관계자들, 아시아 선정 프로젝트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위해 전문 미팅 플랫폼과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활용해 온라인으로도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온,오프라인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한국 및 아시아 프로젝트가 세계 다큐멘터리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DMZ Docs Match가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DMZ인더스트리 프로젝트의 추가 자료 열람이 필요하거나 현장 참석이 어려운 산업 관계자들을 위해서는 트레일러 등 선정 프로젝트의 영상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미디어 라이브러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The MBL Company와의 협력을 통해 OTT 플랫폼 무비블록에 DMZ인더스트리 전용 미디어 라이브러리가 마련될 예정이며, 영화제 기간부터 두달 여간 온라인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3. 2021 DMZ인더스트리 공식 프로젝트

– DMZ Docs Fund

▶ 기획개발펀드

	프로젝트	감독	제작국가
한국	나를 찍어줘, 언니	임연정	대한민국
	다큐멘터리 손선이	류승진	대한민국
	브라이트 퓨처	안드라 포페스쿠	루마니아, 대한민국
	어크로스	김지	대한민국, 독일, 이탈리아
	용산 레거시	김다혜	대한민국
	풀	이수정	대한민국
아시아	바그다드의 여성들	자하라 간도르	이라크, 스위스
	소명	안드레아 스위토	인도네시아
	여기 우리가 있다	랜드 베이루티	요르단
	출렁이는 강물	폴렌 리	캄보디아, 프랑스

▶ 제작펀드

	프로젝트	감독	제작국가
한국	숨	윤재호	대한민국
	에디와 엘리스	김일란	대한민국
아시아	엄마는 챔피언	우위에	중국

▶ 후반작업지원펀드

	프로젝트	감독	제작국가
한국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고한별	대한민국
	1989 베를린, 서울 Now	최우영	대한민국

– DMZ Docs Pitch

▶ 프로덕션 피치

	프로젝트	감독	제작국가
한국	멘탈과 브레인 사이(가제)	김혜이	대한민국
	청년정치백서 1	이일하	대한민국
	펠롱펠롱	강희진	대한민국
	할머니 조경가의 '땅에 쓰는 시'	정다운	대한민국
	해적판 미래	정유진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후방 땅	이준용	대한민국
아시아	길 위의 농부들	니쉬타 자인, 아카시 바우마타리	인도
	뒷골목 유토피아	진장	중국
	베이비 잭프루트 베이비 구아바	농꾸앙	베트남
	아가르의 귀향	양보	중국
	오지 않은 겨울	장추이산	홍콩
	우리가 힌두의 미래다	판카즈 조하르	인도, 독일
	장가 상 삼의 죽음	투샤르 마드하브	인도

▶ 러프컷 프레젠테이션

	프로젝트	감독	제작국가
한국	다섯번째 방(가제)	전찬영	대한민국
	수카바티	선호빈, 나baru	대한민국
아시아	미스핏 코미디언	휴가 후미아리	일본
	신성한 가족	엘비스 잉랑 루	대만, 프랑스
	침묵의 집	파르나즈 주랍시안, 모하마드레자 주랍시안	이란, 필리핀, 캐나다

# 13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POST COVID-19 CONTENT

상시사업

## VoDA (Vision of Documentary Archive)

다큐멘터리 전문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VoDA(Vision of Documentary Archive)가 새롭게 관객과 만난다. ‘다큐멘터리의 비전을 담은 아카이브’라는 의미처럼 영화제 상영작을 온라인으로 보다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외 다큐멘터리 영화 전문 아카이빙으로 다큐멘터리 감상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다큐멘터리 창작자 중심의 수익모델 창출과 산업 전반에 기여하는 공익형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모델로의 도약을 기대한다. 영화제 기간 동안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상영작과 포럼 및 GV를 라이브로 시청 할 수 있으며, 영화제가 끝난 이후에는 국내외 다큐멘터리 스트리밍과 독 스쿨(Doc School) 프로그램 서비스가 상시 운영된다.

### 운영기간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21.9.9.(목)~9.19(일)
상영작/포럼 및 행사 실시간 중계	
국내외 다큐멘터리 스트리밍 서비스	2021.9.20.(월)~12.30(화)
독 스쿨(Doc School) 프로그램 제공	*시범운영기간

웹사이트 <http://voda.dmzdocs.com>

## 2021 독 스쿨 Doc School

‘독 스쿨’(Doc School)은 다큐멘터리의 교육적 가치에 주목하고, 다큐멘터리 영화 시청 후 각 작품의 주제를 바탕으로 개발된 워크시트(활동지)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비대면 콘텐츠의 활용도·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독 스쿨은 2020년 첫 선을 보여 약 4만 5천명이 참여하는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독 스쿨 두 번째 시즌은 총 12편의 새로운 다큐멘터리와 워크시트를 선보인다. 현직 교사 및 교육 전문가가 함께 개발한 워크시트는 중·단편 다큐멘터리 12편과 함께 제작되며 영화제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 VoDA(<http://voda.dmzdoc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독 스쿨 포럼

2020년 첫 운영을 시작한 독 스쿨의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의 교육적 가치와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눌 수 있는 포럼이 진행된다.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가와 작품 선정 및 워크시트 개발에 직접 참여한 개발·자문진이 패널로 참석하며, 독 스쿨의 실 교육 사례와 다큐멘터리 활용 교육의 효과와 실천 사례에 대해 발표·토론한다.

### 교실로 들어온 다큐멘터리, 독 스쿨 Doc School

일시	9월 10일 (금) 19:00 - 21: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진행	허은광(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사무국장)
발표	최여정(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포스트코로나콘텐츠기획단 총괄매니저), 김석목(교사, 전국영화교육연구회) 버지니아 피타로(Virginia Pittaro, SIMA CLASSROOM Education Program Director)
토론	강에스더(전남교육정책연구소 전임연구원), 김세영(미디액트), 심은영(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양철진(송우중학교 교사, 독스쿨 개발진), 이지홍(유네스코 APCEIU 실장)

# 13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PRESS GUIDE

### 프레스가이드

프레스가이드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기자 분들의 원활한 영화제 취재를 지원하기 위한 프레스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관련한 문의 및 요청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프레스 배지

원활한 영화제 취재를 지원하기 위해 프레스 배지를 발급합니다.  
\* 코로나로 인한 좌석 축소운영으로, 프레스 배지는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신 분들 대상으로만 발급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신청기간	2021년 8월 23일(월) ~ 8월 31일(화)		
신청방법	영화제 공식홈페이지 내에서 신청 ( <a href="http://badge.dmzdocs.com/kr/">http://badge.dmzdocs.com/kr/</a> )		
수령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영화제 기간 내 배지 데스크 방문 후 수령</li><li>• 배지데스크 운영안내</li></ul>		
	운영장소	메가박스 백석 5층	
	운영시간	09~20시 (9일(목)은 12~18시, 16일(목)은 09~15시만 운영)	
	유의사항	현장에서 본인확인을 진행하니 명함을 꼭 지참 부탁드립니다.	
배지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일 최대 4매 상영작 발권 (당일 및 익일 상영하는 일반 상영작 대상)</li><li>• 프레스패키지 제공 및 프레스센터 이용</li></ul>		
데일리 패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간단한 취재용 패스로 프레스 센터에서 발급 후 당일 사용</li><li>• 프레스 센터 이용 및 영화제 공간 취재 가능</li></ul>		

프레스가이드

프레스 센터

기사 작성을 비롯해 영화제 취재를 지원하기 위해 프레스 센터를 운영합니다.  
\* 공간 운영방침에 따라 프리뷰 룸은 운영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상을 원하시는 작품이 있을 경우, 매체홍보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하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운영장소	고양종합터미널 4층 고양중장년기술창업센터 세미나실 (메가박스 백석 위치한 건물 4층 롯데아울렛 이벤트홀 내부에 있습니다)
운영시간	09~18시 (16일(목)은 09~15시만 운영)

프레스 자료실

자료제공으로 영화제 취재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프레스 자료실을 운영합니다.

주소	ggfc.webhard.co.kr
ID / PW	DMZDocspress / dmzdmz5
제공자료	보도자료집&메인카달로그 PDF, 영화제 홍보영상, 상영작 스틸 등

인터뷰

게스트 인터뷰 신청은 매체홍보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하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DMZ홍보마케팅팀 매체홍보 담당

이메일	press@dmzdocs.com
전화	031-936-7391